조선
주체112
(2023)
1
(799)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오늘의 조선

체 육

력 사

자 연

표 지: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뒤표지: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조철주, 승 룡

2023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 전진방향을 확증한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

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이 천명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 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옳바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 원칙적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 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에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였다.

회의에서는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전반적국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에 대한 내각총리 김덕훈동지의 제의를 청취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있었다.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방대한 2023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결정서초안에 대한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새해 국가예산안심의정형을 검토하였으며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다섯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이 우리 당의 당건설로선으로 확정되면 조선로동당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 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특별소식

자기의 성격과 본태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강화하면서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백년, 천년 다해나갈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전당의 의사가 집대성된 새시대 당건설방향을 정식 당의 로선으로 책정할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을 조선로동당의 새시대 당건설로선으로 책정함에 관한 결정서가 장내를 진감하는 우렁찬 박수속에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페회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성과 혁명성, 헌신성에 의하여 전원회의결정들이 착실한 집행과 실제적인 변혁에로 이어지고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는 끝없이 펼쳐질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며 페회를 선언하시였다.

특별소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최근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주객관적형세와 앞으로 예견되는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원칙과 투쟁방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은 2일간에 걸쳐 부문별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수정, 보충할데 대하여 제기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연구하였으며 중요한 심의공정을 거쳐 결정서초안을 최종완성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국은 또한 국가예산심의조가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 정형을 청취하고 검토하였으며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정치국은 2023년도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전원일치로 결정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나서는 기타 일련의 중요문제들도 토의되였다.

위대한 우리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

600㎜초대형방사포증정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초대형방사포를 개발완성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신뢰성, 운용민음성을 뚜렷이 확증하고 계렬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공화국무력의 군사적능력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당의 위업에 절대충실하고 조국과 혁명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하여 력사에 없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군수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증산투쟁을 전개하여 30문의 초강력주체병기들을 당중앙전원회의에 드리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600㎜초대형방사포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증정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증정식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군수로동계급대표가 증정보고를 하였다.

그는 전체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충성의 결의가 담긴 증정서를 **김정은**동지께 정중히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강력한 국방건설구상을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떠받들 불굴의 기개를 안고 분투하며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비들의 증정으로 전원회의사업성과를 절대지지해주고 불굴의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준 군수로동계급의 진정에 감사를 표하시고 열정넘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초대형방사포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을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군수로동계급의 투철한 사상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다시금 평가하시고 충성의 전통과 력사를 이어 혁명을 위해 계속 헌신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mm초대형방사포증정식
주체111 (2022)년 12월 31일

600mm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00㎜초대형방사포증정식에서 하신 답례연설

주체111(2022)년 12월 31일

군수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이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간고했던 2022년의 우리의 투쟁을 총화하고 새로운 새해년도 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는 때에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충성의 증산투쟁으로 만들어낸 우리 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비들이 이 나라 창건이래, 당창건이래 력사상 처음으로 당중앙뜨락에 도렬하였습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고무적인 증정품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 당전원회의의 력사적의의를 더 한껏 증폭시키며 적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와 충격을 안길 강위력한 무기들입니다.

전체 군수로동계급과 대표동지들!

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군수로동계급의 본태이고 상징인 무한대한 혁명열과 혁명투지, 철저하고 완벽한 창조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간고했던 2022년의 마지막날까지 불굴의 무한대한 기운과 사명감을 안고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국방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 일군들에게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마음까지 합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정녕코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발양하는 무비의 애국충성과 창조력, 영웅적인 증산투쟁앞에 언제나 숭엄해지는 경의심뿐이며 머리숙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싶습니다.

동지들, 한번 저 광경을 보십시오.

정말 온몸에 힘이 납니다.

비단 절로 솟는 그 힘이 저 무기의 가치와 위력을 알기때문만은 아닐것이며 그렇게도 모진 투쟁과 고난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위해 일심전력 다해주는 로동계급의 애국충심이 슴배여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주체무기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끓어넘쳐서일것입니다.

우리 무력의 강세를 주저없이, 멈춤없이 최강으로 고도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과 구상을 혁명과 인민의 요구로, 자기 삶의 요구로 받아들인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지난 10월하순부터 인민군대에 실전배치할 600㎜다련장방사포차들을 증산할것을 궐기하고 일치분발하여 충성의 생산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3년전 세상이 상상조차 해본적 없는 이 무기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에도 그러하였지만 이번에도 우리 군수로동계급은 초강력의 기세로 련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공업혁명의 중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추가로 이틀에 한문씩, 지어 두문까지 거대한 포차들을 조립해내는 과정에 해당 련합기업소는 놀라운 생산기록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지나온 력사를 돌아보아도 그러했지만 늘 충성과 실천으로 당을 옹위하고 나라의 부강을 도모해온 이 공장의 전통과 특질은 이번 증산투쟁에서도 또다시 남김없이 발휘되였으며 결과 이러한 자랑찬 애국충성의 결정체들이 태여났습니다.

올해에 군수로동계급이 정말 본때있게 투쟁하였습니다.

례년과 달리 가장 어려운 때, 우리 국가가 사상 최악의 도전에 직면했던 이해에 국방공업전선이 들고일어나 무려 5,000여대의 농기계들을 우리 협동벌들에 내다세워 농업전선을 강력히 지원한것도 고무적이지만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수공장, 기업소들이 악전고투를 하며 당과 혁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보위해나갈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앙양된 기세로 굴함없이 분투하여 간고한 2022년 한해동안에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비할바없이 상승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온 한해 당과 혁명을 위해 바쳐온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열렬한 애국충정에 감사의 정 금할수 없고 마음속깊이 감복하고있는데 보다싶이 오늘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날까지 충성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바쳐 해당 련합기업소에서는 전체 군수로동계급의 마음까지 합쳐 우리 당이 제일로 바라고 우리 군대가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타격무장인 600㎜초대형방사포 30문을 우리 당에 증정하였습니다.

이는 공화국무력의 군사기술적발전을 전담하고있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남다른 애국충성심과 무진장한 잠재적능력, 혁명적투쟁본때가 어떠한가를 만천하에 과시한 경이적인 성과로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력사적인 공헌과 고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혁명공업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부름을 남다른 영예와 자랑으로 안고있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은 언제나 이렇게 떳떳하고 당과 혁명위업에 충실합니다.

이런 영웅성과 특질, 절대의 힘을 지닌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있는것은 세상 어느 나라도 가지고싶어도 가질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것이며 하기에 우리 당에 있어서 이는 제일 큰 자랑중의 자랑으로 됩니다.

언제나 우리 당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일을 본도로 알고 우리 당이 관심하는 일이라면 천사만사에 제일먼저 들고일어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억척같이 떠받쳐주고있는 우리 군수로동계급 모두는 진짜배기혁명가들, 애국자들이며 영웅중의 영웅들입니다.

동지들!

오늘 군수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증정한 저 무장장비는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극복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정밀공격능력을 갖추었으며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헌신적증산투쟁에 의해 매우 중요한 공격형무장장비를 한꺼번에 30문이나 인민군부대들에 추가인도하게 되였으니 나는 참으로 격동되고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 군수로동계급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열렬히 호소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망동질, 갈갬질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단호한 대응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이 선언, 이 견결한 대적의지를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무적의 검과 창과 방패로 확고히 담보해주어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의 전체 혁명전사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을 결사관철할 불굴의 신념과 투지를 가다듬고 침략자 미제와 괴뢰군대를 여지없이 압도할 강위력한 주체무기생산에 총궐기해 분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명과 정세의 요구는 국방공업의 끊임없는 발전에 주력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사회주의발전의 믿음직하고 굳건한 안전환경을 철저히 담보하는것입니다.

주체의 힘으로 난관과 불가능에 도전하여 변혁과 비약을 일으키는 장하고 미더운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있고 당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뭉친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의 강군건설위업은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용감한 기개, 당당한 자신심을 간직하고 보다 거창한 투쟁과 새로운 기적창조로 더욱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싸워나아갑시다.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 우리 혁명을 위해 굴함없이 투쟁하고 전진하여온 잊지 못할 2022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각 이렇듯 뜻깊은 증정행사로 특색있게, 의의깊게 장식할수 있게 해준 우리의 전체 군수로동계급과 국방과학자들, 일군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2023년 새해의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872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23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당과 국가, 인민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특별소식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주체111(2022)년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신년경축대공연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새해를 경축하는 뜻깊은 대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5월1일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 수도시민들이 대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조국을 천만년 받들어갈 인민의 애국열의가 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공연에는 조선로동당을 열렬히 칭송한 찬가들과 로동당시대의 명곡들, 무용종목이 올랐다.

대공연에 출연한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은 참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으로 송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신년경축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다.

어머니당을 열렬히 칭송한 찬가들과 로동당시대의 명곡들, 무용종목들이 오른 신년경축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다.

신년경축대공연은 송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국방과학원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 진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의 중요핵심목표들을 완수하려는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이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 진행되였다.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이날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중대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시험은 추진력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시험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벡토르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되였다.

중대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체계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에서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문제를 훌륭히 해결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국방과학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하시였다.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대변인은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험은 20m분해능시험용전색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촬영기 2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발사시킨 후 우주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각종 촬영장비에 대한 촬영조종지령과 자세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면서 자료전송장치들의 처리능력과 안전성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였다고 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우주환경조건에서의 촬영기운용기술과 통신장치들의 자료처리 및 전송능력, 지상관제체계의 추적 및 조종정확성을 비롯한 중요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한데 대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발사의 최종관문공정을 거친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112(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요시험결과는 즉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되였다.

초대형방사포 검수사격 진행

제2경제위원회에서는 주체111(2022)년 12월 31일 오전 당중앙에 증정하는 초대형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을 진행하였다.

3발의 방사포탄은 조선동해의 섬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였으며 무장장비의 전투적성능이 과시되였다.

주체112(2023)년 1월 1일 새벽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어느한 장거리포병구분대에서는 인도된 초대형방사포로 1발의 방사포탄을 조선동해를 향해 사격하였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진행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서한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를 보내시였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청년동맹, 청소년교양관계부문 등의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대회는 다음의 의정들을 승인하였다.

1.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가 되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2.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우리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인 서한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가 정중히 전달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가 되자》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여 새세대들을 어엿하고 참되게 키우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소년단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소년단원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온것이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이후 소년단사업의 긍지높은 총화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대한 조선의 참된 아들딸, 애국소년의 품성과 자질을 더 훌륭히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소년단기와 붉은넥타이를 펄펄 휘날리며 강성조선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온 나라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조국의 기쁨과 자랑으로, 희망과 미래로 귀중히 여기시며 은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기념 사진전람회 《위대한 해님의 품속에서 영광과 행복의 10년》 진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과학기술전당을 찾은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

로운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소년단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적소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과 열렬한 박수속에 결정서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결정하였다.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항상 명심하고 조선소년단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영원히 조선로동당만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로, 열렬한 애국심과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조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은 끝없는 랑만과 희열에 넘쳐 유쾌한 나날들을 보내며 한생토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전달모임 진행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밝아온 희망찬 새해 주체112(2023)년의 첫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열렬한 사랑과 정으로 새세대들이 언제나 밝고 기운차게 자라도록 보살피시며 혁명의 교대자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아버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기대가 담겨진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소년단대표들에게 수여하였다.

자기들을 영광의 대회에 대표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소년단대표들이 터치는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의 웨침이 장내를 뜨겁게 울리였다.

새해 주체112(2023)년을 맞으며

국기게양식 진행

주체112(2023)년 1월 1일 정각 0시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군중들은 국기를 우러러 일제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112(2023)년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새해의 첫인사를 드리였다.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신년경축야회 진행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앞당겨올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주체111(2022)년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신년경축야회가 진행되였다.

새해 주체112(2023)년을 맞이한 평양의 밤

새해의 축포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 미래를 약속하며 수도 평양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국가부흥과 변혁적발전의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게 될 희망찬 새해 주체112(2023)년을 맞이하는 수도시민들은 기쁨과 환희에 넘쳐 명절을 뜻깊게 보내였다.

더 좋은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이 활기에 넘친 거리들과 봉사단위들 그리고 밤깊도록 꺼질줄 모르는 집집의 불밝은 창가마다에 비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궐기대회 진행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 수도의 10만여명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

거창한 투쟁과 새로운 기적창조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반드시 앞당겨오려는 신념과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며 나아가는 군중시위 참가자들

약동하는 철의 기지

철강재증산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안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주체112(2023)년의 생산에 들어갔다.

강철직장의 용해장들마다에서 새해정초부터 집단적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특히 초고전력전기로들의 용해공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교대간협동을 더욱 강화하여 용해시간과 원료장입시간을 단축하고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탐구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리면서 매일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압연직장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압연기, 가열로 등 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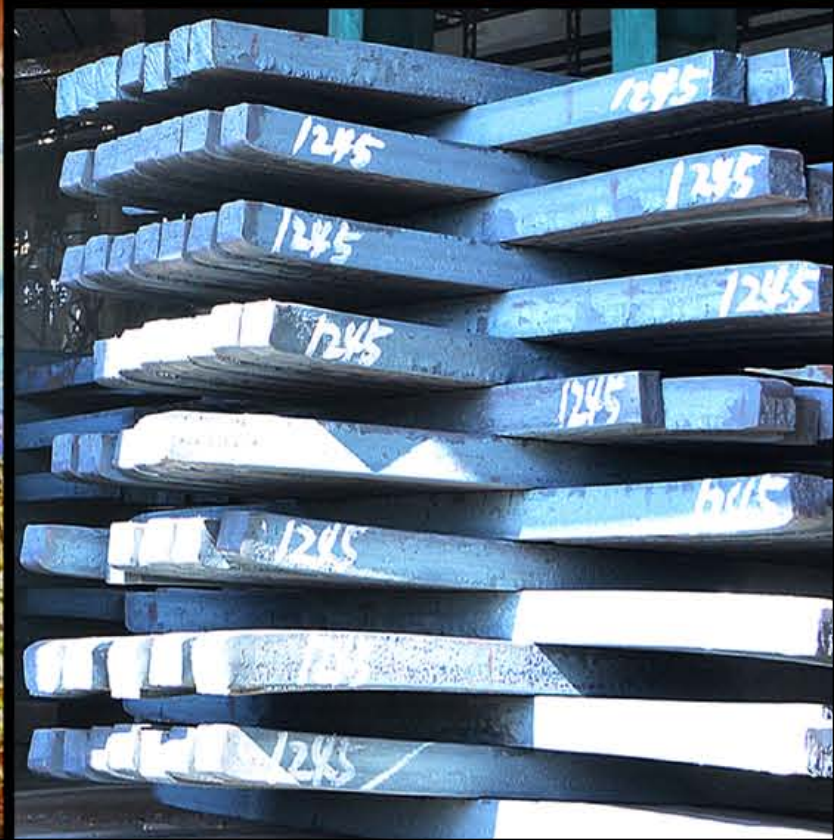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는 한편 설비들의 성능개선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가스발생로직장에서도 석탄운반능력이 높아진데 맞게 설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생산정상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현행생산과 함께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의 제고를 위한 사업도 착실하게 진행하고있다.

이곳 기술집단에서는 강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연구사업도 계속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리진범

1245

주체108(2019)년 6월 월도간석지건설에 진입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 의하여 3, 300여정보의 간석지가 륙지로 전변

넓어지는 대지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를 찾아서 -

간석지개간에 힘을 집중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월도간석지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였다.

간석지개간을 자립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간석지개간공사를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여 진행된 월도간석지건설은 630여만m^3의 성토공사와 50여만m^2의 장석쌓기를 진행하고 배수문을 비롯한 구조물들을 건설하여 수십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공사의 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건설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진척시켜 나갔다.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외부망공사에서 최고실적수준을 돌파하는 성과가 이룩되고 배수문공사가 불과 두달동안에 완성되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의 노력에 떠받들려 철산군의 장송지구에서부터 월도, 보산지구를 련결시키며 아득히 뻗어나간 방조제들을 따라 륜환선도로가 형성되고 3, 300여정보의 간석지가 륙지로 전변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농촌진흥의 새 모습, 새집들이경사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전환되는 속에 전국의 수많은 리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문화주택들이 일떠서고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독창성, 현대성, 문화성이 구현된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에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어장에 만선기 날린다

조선동해의 포구마다에 흐뭇한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해마다 10월하순 조선동해로 물고기들이 밀려들 때면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의 모든 수산사업소들은 일제히 집중어로에 들어간다.

수산을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3대축의 하나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어장들을 타고앉은 수산단위들에서 날이 감에 따라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바다물온도와 물흐름상태, 물고기의 회유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어황예측, 어장선택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리고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앞선 어로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소별, 선단별, 어선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세소어업도 배합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만선기를 높이 날리며 포구들에 들어서는 고기배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5월27일수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물고기잡이계획을 17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각지의 수많은 수산사업소들에서도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하륙장마다 폭포처럼 쏟아진 물고기들이 가공장들을 거쳐 랭동저장고들에 쌓이고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수송되여 어디서나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흐르고있다.

사진 최원철, 홍광남
글 김선경

모래그림 창작가들

4년전 관록있는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에 모래그림창작실이 새로 조직되였다.

조선에서 음악과 모래그림이라는 새로운 무대예술형식의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한것은 주체100(2011)년부터이다.

현재 실장으로 사업하는 강은주와 창작가들인 김명아, 김창혁, 김규권이 당시 음악과 모래그림분야의 첫 작품들을 내놓은 선구자들이다.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불과 두달만에 새로운 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킨 그들모두는 다음해인 주체101(2012)년에 공훈예술가칭호를 받았다.

그들이 창작한 음악과 모래그림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우리 집사람》,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흥부와 놀부》 등은 지금까지 작품창작의 표본으로 간주되고있다.

조선의 모래그림은 여러가지 예술공연을 안받침하는 새로운 무대예술형식으로서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는 주제들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다양한 미술기법들을 적용한것으로 하여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있다.

실의 성원들은 모두가 평양미술대학졸업생들이다.

오늘 이곳의 신인창작가들은 선구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줄기차게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다.

실에서는 집체창작에 큰 힘을 넣으면서 작품들의 주제와 형상의 폭을 넓혀가고있다.

개별적으로 만든 작품보다 여러명의 개성적인 기법들이 반영된 집체작품이 관중에게 더 큰 감흥을 준다고 이곳 창작가들은 말하고있다.

그리고 서로의 지혜와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창작과정에 집단의 화목도 더욱 굳건해진다고 한다.

보다 훌륭한 작품을 창작완성하기 위해 실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공연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에서 이곳 창작가들은 모래그림을 위한 기악과 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에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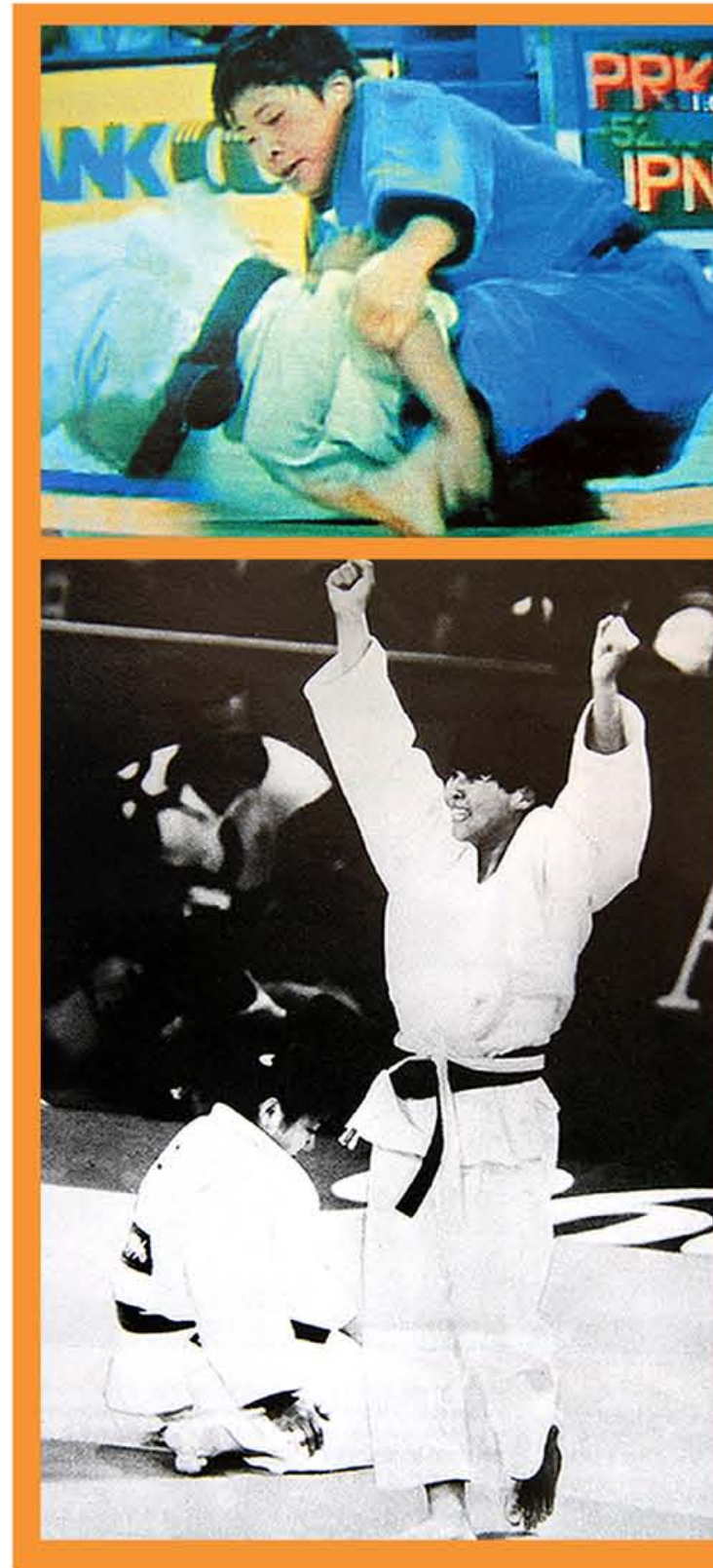
음악과 모래그림작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이 커감에 따라 이들의 창작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강수정

4중세계유술 선수권보유자

계순희는 조선의 이름난 유술강자이다.

그는 유술을 시작하여 몇해후에 벌써 공화국체육명수가 되였다.

주체85(1996)년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유술 48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결승경기에서 세계선수권보유자인 일본선수를 통쾌하게 타승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유술 48㎏급 경기에서 1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1위
주체90(2001)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1위
주체92(2003)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1위
주체96(2007)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1위
주체94(2005)년

계순희는 주체107(2018)년 국제유술련맹 유술명인상을 수여받았다.

그후 주체90(2001)년에 진행된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우승의 단상에 올라섰다.

그때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던 처녀의 모습을 조선인민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을 몰랐던 그는 주체92(2003)년과 주체94(2005)년, 주체96(2007)년에 있은 세계유술선수권대회들의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련이어 세계선수권을 획득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였다.

인생의 가장 값있고 보람찬 청춘시절을 빛나게 장식한 계순희는 오늘 자기의 선수시절이 흘러간 모란봉체육단에서 선수후비육성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그가 키운 선수들은 1년후부터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의 지도를 받아온 조선향선수는 2015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룩한 성과를 두고 사람들이 축하를 보낼 때면 계순희는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군 한다.

지도교원의 손길에 이끌려 자기의 재능을 부단히 련마하여온 청소년체육학교시절이며 선수시절과 조선체육대학 학생시절…

나라에서는 그를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었다.

하기에 그는 유술책임감독사업을 하는 지금도 늘 유술복을 입고 선수들을 가르치고있다.

열정넘친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없이 누가 감독이고 선수인지 영 분간할수 없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

우승의 금메달, 이것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계순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 정 원 수: 120명
• 좌 석 수: 77석
• 차체길이: 12, 000mm
• 차체너비: 2, 500mm
• 질 량: 12, 000kg
• 최대속도: 85km/h
《평양-816》형 2층배스

대동강반의 력사유적들

조선의 력사에서 강대한 국가였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는 5세기전반기에 나라의 남쪽지역인 평양(대성산지구)으로 수도를 옮기고 6세기중엽에는 지금의 평양시 중구역, 평천구역을 포괄하는 일대에 내성, 중성, 외성, 북성으로 이루어진 수도성을 새로 쌓았다.

대동문은 이때 평양성의 내성 동문으로 건설되였다.

947년과 1392년에 고쳐지었으며 163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형성되였다.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 대동문동에는 수천년에 달하는 도시의 력사를 체현하고있는 여러 유적유물들이 있다.

높이 19m인 성문은 화강암을 다듬어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우에 세운 웅장한 문루로 이루어져있다.

높이 6. 5m인 축대의 중심부에는 무지개모양의 문길을 냈다.

축대우에 세운 2층문루는 앞면 3간(15. 91m), 옆면 3간(10. 34m)의 합각집이다.

대동문은 장엄함과 아름다움, 경쾌성을 다 갖춘 조선봉건왕조시기 성문건축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대동강기슭의 벼랑우에 예로부터 명승지로 이름난 련광정이 서있다.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과 드넓은 벌, 푸른 산들이 하나로 어울린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였던 련광정은 《제일루대》, 《만화루》라고도 불리웠다.

고구려시기인 6세기중엽 평양성 내성의 동쪽장대터로 처음 세워졌다.

고려(918년-1392년)시기 평양성을 보수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루정을 세우고 《산수정》이라고 불렀다.

련광정으로 불리운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670년에 다시 세우면서부터이다.

대동강기슭의 깎아지른듯한 절벽우에 바싹 내밀어세운 련광정은 주변환경과 아주 잘 어울린다.

평양종은 대동문가까이의 종각안에 있다.

지금의 평양종은 1726년에 4개월동안 주조완성한것이다.

종의 질량은 12t 914kg이고 높이는 3. 1m이며 아구리직경은 1. 6m이다.

련광정

련광정은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과 아름다운 주변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인다고 하여 《제일루대》, 《만화루》라고도 불리웠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명 등이 조각되여있다.

지금의 종각은 1827년에 고쳐지은것이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는 큰 종의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다.

사진 황정혁
글 박병훈

대동문은 장엄함과 아름다움, 경쾌성을 다 갖춘 조선봉건왕조시기 성문건축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대동문

지금의 평양종은 1726년에 4개월동안 주조완성한것이다.

종의 질량은 12t 914kg이고 높이는 3. 1m이며 아구리직경은 1. 6m이다.

평양종

미국은 55년전 《푸에블로》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68년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나포당시 조선인민군 해군함정 수색조 조장이였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박인호

이제는 5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던 때가 생생하게 추억된다.

1968년 1월 23일 오전 조선인민군 해군에서 복무하던 내가 탄 함정은 조선동해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하다가 강원도 원산앞바다의 려도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을 발견하였다.

우리 함정이 그를 가까이하면서 국적표식을 밝힐것을 요구하자 이 《선박》은 응하지 않고 도망치려 하면서 우리를 향해 기관총사격까지 가하였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조선인민군 해병들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선원들

오만무례한 적들의 망동에 분격한 우리 해병들은 대응사격을 하였으며 적함에 뛰여올라 발악하는 적들을 제압하면서 함선을 나포하였다.

결국 우리 나라 령해깊이까지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나포되여 원산항으로 끌려들어왔다.

《푸에블로》호는 미중앙정보국에서 직접 파견한 무장간첩선으로서 거기에는 전파를 잡아 다른 나라 군사기지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정밀하고 현대적인 여러가지 정탐설비들이 설치되여있었다.

선원들이 가지고있던 지도에는 우리 군사기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여있었으며 함선위치일일기록부에는 1967년 12월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사세보항을 떠나서 우리 령해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다는것이 상세히 기록되여 있었다.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행사이고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였다느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군사적위협으로 우리 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하였다.

미국은 1월 24일과 25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련거퍼 열고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륙해공군무력을 동원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해나섰다.

미제의 광란적인 책동으로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그러던 주체57(1968)년 2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2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철의 의지와 단호한 립장에 무한히 고무된 인민군장병들은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일격에 쳐물리칠 각오를 안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함장은 자기의 자백서에서 《내가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들의 행위는 조선정전협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였으며 이것은 완전한 침략행위였습니다.》라고 실토하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침입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무전실과 정탐기재들의 일부

자백서를 쓰는 선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TO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knowledging the validity of the confessions of the crew of the USS "Pueblo" and of the documents of evidence produc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effect that the ship, which was seized by the self-defence measures of the naval vessels of the Korean People's Army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January 23, 1968, had illegally intruded in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many occasions and conducted espionage activities of spying out important military and state secre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oulders full responsibility and solemnly apologizes for the grave acts of espionage committed by the U.S. ship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intruded in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gives firm assurance that no U.S. ships will intrude again in future in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anwhil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arnestly request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deal leniently with the former crew members of the USS "Pueblo" confisca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d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se crew members have confessed honestly to their crimes and petitione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lenienc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ilbert H. Woodward,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23 Dec. 1968

기자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깊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조타수

1968년 12월 23일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대로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였다.

미합중국정부를 대표하여 미륙군 소장 길버트 에이치. 우드워드가 사죄문에 수표하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에 겁을 먹은 미제는 드디여 굴복하고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면서 미국정부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감행한 정탐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푸에블로》호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억센 기상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자위로선의 정당성과 위력이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러왔다.

오늘날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만일 미국이 55년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감히 우리를 건드리려든다면 그때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고야말것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박인호

55년전 조선인민군 해병들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로획무기전시장에 결박되여있다.

천연기념물 비파물범

조선의 북동부 라선시의 바다가에 옛날의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비파단이 있다.

매혹적인 자연경관을 펼치고있는 비파단의 앞바다는 수많은 바다동물들의 더없는 보금자리이다. 그 바다동물들중에는 이곳 지명을 단 물범도 있다.

비파물범은 몸길이가 1. 5～2m이고 몸질량은 120～150kg이다. 대가리는 앞면이 좁고 귀바퀴가 없다. 재색을 띤 등부위에는 불규칙적인 검은색의 반점들이 많고 누른색의 배부위에는 검은색의 반점들이 성글게 있다.

비파물범은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주로 물고기와 문어, 낙지와 같은 두족류들을 먹으며 산다.

물범과에 속하는 이 바다짐승은 세계적인 보호동물이다.

오늘 세계적인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바다환경오염으로 하여 물범들의 생활령역은 점점 좁아지고 그 마리수도 계속 줄어들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국가적으로 리로운 동물들을 비롯하여 위기 및 희귀종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여오는 속에 이곳 물범의 마리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2년전 비파물범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호활동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되였다.

글 박의철

ㄱ-23088000416

낸 곳: © 조선화보사 2023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